

1500억 투입...농산물 가격잡기 '올인'

납품단가 지원 품목 확대·품목별 지원단가 2배 확대 등 물가안정 도모 농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 할인...수산물 특별전 4월14일까지 연장

정부가 전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신선과실류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목표로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자금을 기존 434억원에서 대폭 늘리고,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품목별 지원 단가도 최대 2배까지 늘려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사과·대파 등 지난해 말부터 가격 불안이 우려된 13개 품목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자금 204억원과 230억원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금 등 총 434억원 규모의 농산물 물가안정 자금을 투입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등으로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하

고 있는 사과·배 등 신선과실류 가격은 지난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물가 안정은 커녕 올해 들어 가격이 더욱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농축산물 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는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대상 역시 기존 사과·감·감귤·대파 등 13개 품목에서 배·상추·양배추·포도·키위·단감·갯잎·간파늘 등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 지원단가 역시 최대 2배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큰 가격 상승세를 보인 사과(1kg)는 기존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지원단가를 2배 늘리기로 했고, 딸기는 기존 1600원에서 2400원까지 지원단가를 올렸다.

정부는 또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기존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000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을 구입 시 최대 1~2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비싼 국산과일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면제하고 있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 t을 빠른 시일내에 시장에 풀고, 관세인하 품목 추가 및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 축산물은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통해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으며, 축산물 할인 행사를 연중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요가 높은 식품군인 계란의 납품단가 지원규모 역시 1만(30구) 기준 500원에서 1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수산물은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6개 품목의 정부 비축 물량 600 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이 폭등한 오징어, 참조기 등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던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은 당초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4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점점 빨라지는 감자 심는 시기

짧은 재배 기간·필수 영양 갖춰 '미래 식량' 각광

며칠 전 봄감자를 심는 시기를 놓고 아내와 승강이를 벌였다. 새로 경작하게 된 밭에 감자를 심으면 하는데 언제 해야 할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나는 소싯적 경험을 들먹이며 3월 말이나 4월 초라고 우겼지만, 아내는 요즘은 달라졌다고 3월 중에 심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인터넷 검색창에 판결을 받아 보기로 했고 농협에서 나온 2024 농사월력의 3월 편에 '감자 심기(남부 3월 상순, 중부 3월 중하순)'를 근거로 3월 중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아쉽지만 결과는 아내의 승이었다.

감자는 고구마, 옥수수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물이다. 중남미 안데스산맥이 원산지인 182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 구황작물로 활용되다가 지금은 농업인의 주요한 소득원이 됐다.

초봄 씨감자를 심으면 100여 일 자라 하지만 6월 말에는 수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지에 일찍 수확한 감자를 하지감자라고 부른다. 그때는 눈에 모를 낸 벼들이 이제 조금 자랐을 시점인데 석 달이 미처 못 되는 시간에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감자는 벼나 밀보다 재배 기간이 짧다. 햇빛이 조금 보자라도, 기온이 낮아도 잘 자란다. 더군다나 덩이줄기가 땅속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다른 곡물에 비해 같은 경작 면적에서의 생산량도 2~4배 많다. 구황작물로 배고픈 시절을 극복하게 하는 고마운 작물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자는 필수 영양소도 골고루 갖췄다. 식물의 줄기가 변형된 덩이에 영양소를 저장하는데 주요 영양소는 전분이지만 비타민 C·B2·B6, 아미노산, 단백질, 미네랄,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하다. 클로로겐산, 루테인 등의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주

식량'과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감자는 밀과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이다. 동서양을 아울러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하며 수차례의 식량난을 버티게 해준 대표적인 구황작물로, 전 세계 13억 명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등에서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비중이 높다. 유럽에서도 주식으로 인기가. 프랑스인은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하며, 독일인은 '땅에서 나는 배'로 부른다.

그런데 식량작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자 생산량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줄고 있다고 한다. 농작물이 산업화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를 견디지 못하면서 식량 자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감자 파종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 생산량마저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감자 생산량은 전년보다 9.5% 감소한 51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생산업체들은 감자 작물을 심는 비용이 40% 이상 오르면서 농가의 수익성이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감자의 이상적인 재배 온도인 섭씨 20도에서 30도의 기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생산량은 갈수록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습격을 저지하지 못하면 인류가 세계적인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자가 구황작물로서 임무를 다한 터라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크게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먹거리의 위기는 곧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bigkim@kwangju.co.kr

전남 12개 농·축협, 종합 업적평가 최우수상



지난 14일 '2023년도 종합업적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농협에 선정된 광주축협과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축협 제공>

광주축협 7년 연속 전국 1위

전남 12개 농·축협이 2023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다. 특히 광주축산농협은 7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17일 전남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종합업적평가를 발표했다.

종합업적평가는 입지유형, 사업량 등을 고려해 40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경제, 신용, 교육지원 부문 등 50여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전남에서는 ▲광양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 ▲담양 장평농협(박태식) ▲보성 보성축협(이춘형) ▲영암 삼호농협(황성오) ▲영암 서영암농협(김원식) ▲영암 신북농협(이기우) ▲영암 월출산농협(박성표) ▲영암 영암축협(이병중) ▲완도 노화농협(김중량) ▲장흥 관산농협(오형주) ▲화순 이양정풍농협(안상섭) ▲광주축산농협(김호상) 등 12곳이 최우수농협에 선정됐다.

12개 농축협에는 시상금 300만원과 농업인 실익용 차량 1대(2000만원 상당), 직원 특별승진 등

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7년 연속 최우수농협에 선정된 광주축협은 2023년도 당기순이익 55억4000만원을 달성, 2년 연속 손해보험 연도대상 및 5년 연속 5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광주축협은 올해 8월 광주축산농협 종합타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실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광주축산농협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출하·저장량 감소...배추 가격 오른다

KREI, 무 가격 하락 전망

이달 배추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무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정보 2024년 3월 엇근채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상품) 도매가는 10kg 기준 9500원으로 전년(6942원) 대비 2558원(36.8%) 올랐다.

가격 상승 배경에는 겨울배추의 출하량과 저장량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배추의 생산량은 28만2297 t으로 전년(31만6777 t)보다 10.9% 감소했다.

또 지난달 수확기에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저지 장 물량을 조기 출하하면서 저장량 역시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2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매가 하락이 전망됐다.

무(상품·20kg)의 도매가는 1만1000원으로 전년(1만2130원)에 견줘 1130원(9.3%) 감소했다.

특히 오는 4월까지 출하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44.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무 가격 하락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